도의선사 주석처, 성지 순례길 만든다

양양郡, 진전사 및 선림원지 낙산사와 연계 관광 성역화

조계종조 도의선사 주석처인 양양 진전사지와 신라 선종 태동지인 선림원지를 비롯해 낙산사 등 양양지역 선종사찰과 사지를 잇는 관광상품이 개발된다.

양양군이 1월 7일 선종 불교의 성지와도 같은 지역여건을 토대로 불교문화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진전사지 정비를 위한 용역을 비롯해 제반 사업을 시작할 것을 발표했다.

양양군이 공개한 관광상품 사업은 조계종 종조로 추앙받는 도의 선사가 주석한 진전사지와 신라 선림원지, 낙산사를 잇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이다.

양양군은 "스토리텔링 개발과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청 및 조계종과 협의해 국비 등을 지원받아 대단위 복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양군은 복원 이후 사찰 간 성지순례길을 구축한다. 양양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진전사지의 추가 복원과





양양 진전사지(사진 왼쪽)과 양양 선림원지 석등의 모습. 양양군은 지역 불교문화재를 아우르는 성지순례길을 개발해 관광상품화할 계획이다.

국보 · 보물 소장에도 접근성 떨어져
순례길 정비 · 스토리텔링 강화
조계종 협의 진행 · 걷기대회 예정

함께 삼층석탑, 부도탑을 사찰과 성지순례길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양 진전사와 선림원, 천년고찰인 낙산사를 연결하는 마케팅을 통해 불교 성지화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 강현면에 위치한 진전사지는 2005년 18억 5400만원을 투입해 법당과 요사채 208.43㎡을 복원했고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았다. 국보 제122호인 삼층석탑과 보물 439호인 부도 등이 남아 있다. 양양군은 진전사 정비를 위해 지난해 8월 용역을 의뢰해 1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확보를 통해 사찰과 부속건물을 추가 복원해 사찰과 떨어져있어 일반인들이 찾기 어려웠던 3층 석탑과 부도탑 등을 연결하고 걷기대회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서면 미천골 선림원지는 번성할 때 한 끼 공양을 위해 쌀을 씻으면 그 물이 20리를 흘러갔다는 데에서 유래해 지금의 미천골(米川谷)이라는 지명이 있게 한 곳이다. 1948년 범종이 발견되며 알려졌으며 현재 3층 석탑과 석등, 홍각선사탑비 및 부도 등 4점의 보물이 남아 있다.

선림원은 804년 순응(順應) 스님이 세운 절로 9세기 중엽 홍각 스님에 의해 대대적으로 중수됐는데, 홍각 스님은 선종 스님이다. 1985년 동국대 발굴조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00년 전후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절터가 완전히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부도비와 석등, 삼층석탑 등은 1965년에 복원한 것이다.

양양군은 선림원지에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해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인근 불교성지를 연결하면 관광자원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교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종단 주춧돌 놓는데 일조할 터"

1월 11일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덕운 스님 취임

"한국불교미륵종이 한국불교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사)한국불교미륵종은 1월 11일 광주 미륵사 수자타에서 종단스님 100여 명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6대 총무원장 덕운 스님의 취임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덕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미륵종은 창종 이래 20년 동안 송정 스님이



비상대취위원회 위원장 영탄 스님(우측)으로부터 총무원장 추대장을 받고 있는 덕운 스님

어려운 종단 살림살이를 송정스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며, "도재양성에 중점을 둔 승려기초 교육과정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를 통한 불교문화사업 창달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종단 문도의 화합을 바탕으로 대중의 중의를 얻어 종단운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덕운 스님은 1962년 팔공산 동화사에 출가해, 1963년 태백산 각화사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9년 송광사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자 극락암 호국선원, 월래 묘관음사 선원, 문경 봉암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정진했으며, 1982년 용인 용주사 말사 장경사 주지와 1984년 용인 불교학교 초대교장, 2001년 한국불교미륵종 교육원자과 종회의장을 역임했다.

한국불교미륵종은 지난 11월 9일 전 총무원장 송정 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이 되자 지난해 12월 27일 비상대취위원회를 구성해 총무원장에 덕운 스님, 부원장에 혜법스님(미륵사 주지)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비상대책위원장 영탄 스님의 경과보고, 추대장 수여, 축가, 행장소개, 취임사, 임명장수여, 법어(종호 스님), 신년하례 의식이 봉행됐다.

한편 한국불교미륵종은 이날 총무원 부원장 혜법 스님, 사서실장 민예 스님, 기획부장 영범 스님, 재무부장 혜연 스님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타 부장급 인사는 창종기념법회에 단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광주불교 활성화를 위한 신년대법회 개최

1월 7일 1200명 모여 '서원의 공' 제작, 발원문 낭독

광주불교의 미래를 기원하는 뜻 깊은 법회가 마련됐다. 불기 2558년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와 광주지역 공무원불자회,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는 1월 7일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기념대법회를 갖고 광주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지역 불자들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광주불교연합회와 함께 광주불교의 새 희망을 일구어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보탬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병마에 시달리는 어린 생명들과 낯선 땅에 새롭게 정착하는 이주여성,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불평등, 불공정, 지역편견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는 희망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한 스님 100여 분과 강운태 광주시장, 박주선 국회의원, 박혜자 국회의원 등 정관계인사들과 광주지역불교신행단체 등 1200여 명의 불자들이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봉행됐다.



1200여 대중이 성도재일을 맞아 연합으로 칠정례를 올리고 있는 모습

행사는 1부 광주불교연합회 임원단 취임식과 2부 성도재일 법회가 봉행됐다.

특히 이날 불자들은 '서원의 공'에 광주불교연합회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작성해 전달하기도 했다. 1부 행사에 이어 2부 성도재일 법회는 1200여명의 불자들의 합송으로 칠정례를 봉행해 큰 장엄함을 선사했다.

법문에 이어 정근과 촛불의식, 발원문 합송, 사홍서원이 진행됐다. 또한 조계종 광주승보회에서 마련한 장학금이 초 · 중 · 고등학생 20여명에게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재양성이 그 어떤 것 보다 최우선"

지역 학생 장학금 전달한 백산장학재단 이사장 도영 스님



도영 스님이 1월 8일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과 함께 서있다. 스님은 불법홍포에 인재불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육성에 매진하기 위해 설립한 백산장학재단(이사장 도영, 완주 송광사 회주)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을 선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백산장학재단은 1월 8일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에서 갑오년 신년 기원법회 및 제4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전북대학교 신경선 학생 외 중고 대학생 34명에게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 등 총 3,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2010년 발족한 백산장학재단은 도영 스님이 사재를 출연해 출범했다. 만 3년간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0년 3억 출연해 장학재단 설립
2017년까지 10억 규모 확대 발원

"부처님께서 행하신 대자비의 정신은 바로 사랑과 관심입니다. 평생 불법홍포에 전력하며 인재불사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도영 스님은 장학회 창립 정신을 이렇게 밝혔다. 세랍 70세, 법랍 50세를 맞은 해인 2010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스님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선서화를 비롯해 다양한 물품의 나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3억 원을 바탕으로 시작한 백산장학재단 기금은 스님의 이런 노력에 현재 약 6억 2000만원 정도로 늘어났다. 스님은 3년 후 약 10억 원 가량으로 장학재단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사실 스님이 인재불사에 대한 서원을 세운 것은 오래됐다. 1980년 금산사 주지 소임 당시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느꼈지만 전북불교회관 건립불사를 비롯해 금산사 대적광전 화재와 복원,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사업 등 크고 작은 불사관계로 뒤늦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2010년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늦었지만 출가 50년 만에 비로서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스님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다고 했다.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스님은 "나의 삶, 나의 불교를 말하라면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며 새해를 맞은 불자들이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처한 자리에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성거사, 미얀마에 학용품 전달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이들에게 광주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성거사(주지 혜공)와 바라밀 봉사단은 구랍 28일부터 1월 3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양곤에 위치한 학교시설에 학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학용품은 사찰과 신도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마련한 선물이다. 성거사는 이미 2012년에 이 학교에 10평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지원한 바 있다.

혜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미얀마는 상좌부 불교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소중한 불교국가"라며 "이러한 불교적 전통이 이어져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진면목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거사 성지순례단은 양곤에 이어 바간, 혜호, 만달레이 등 미얀마의 불탑과 성지 등을 순례했다.



성거사가 양곤에서 개최한 학용품 전달식에는 현지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1월 28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南京中醫學大學 1954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